

주요용어 : 학생소외, 우울, 자살사고, 비행

고등학생의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과의 관계 연구

이 은 주* · 이 은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있어 개인이 지각하는 소외는 복잡한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표현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외는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의 발달뿐 아니라 인지·정의적 측면과 그 외 제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되어 사회의 제문제와 청소년문제, 교육문제 및 개인의 여러 문제들을 이해하는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의 삶의 과정 중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청소년기는 그 과정에서 혼란과 좌절이 발생되어 소외감이 야기될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Kang, 2000). 사회의 구조적 상황에서 무기력해진 청소년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전통적인 것에 회의를 느끼기 쉬우며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지만 사실상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판단되거나 미래지위에 대한 자기상이 불투명해지고 무의미감을 느낄 때 일탈성향이 나타나기 쉬우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지하거나 기회구조가 불평등하다고 인지하게 되면 그들의

무력감은 일탈행동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Han, 1974).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일 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정체감과 자아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력 있는 조직으로 학교의 역할은 사회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으며 학교생활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지식의 상품화, 학교의 공장화, 교육의 비인간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심각한 소외를 유발하며, 이러한 소외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무력감, 무의미성, 규범상실감, 문화적 유리감, 사회적 단절의식, 자아유리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가정과 학교에서의 소외의 경험은 학습부진, 청소년 비행, 학생운동 등 다양한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나거나(Bronfenbrenner, 1976), 심하거나 장기간 소외 상태인 청소년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우울 반응을 보이며(Unwin, 1970), 이러한 상태는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생각과 행동인 비행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mbor, 1973; Unwin, 1970). 이처럼 청소년기에 느끼게 되는 소

* 서강정보대학 응급구조과 부교수

**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조교수(교신저자 E-mail : eslee@mail.chunnam.ac.kr / eslee5335@hanmail.net)

외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심각한 소외를 느끼게 되면 의욕상실, 일탈, 비행 등의 문제행동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Calabrese & Adams, 1990; Young, 1989). 특히 이 시기의 소외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의 저해뿐만 아니라 이후의 성인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외감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밝혀내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소외감에 관한 연구는 그 개념의 모호성과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측정도구의 부재로 심리학분야에서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인 연구들로써 Marx와 Fromm, Hegel의 소외론의를 탐구하거나, 소외정도를 실증적으로 측정한 연구들일지라도 우울, 자살, 비행과 같은 구체적인 개인의 경험적 현상과 소외와의 관계는 다루고 있지 않다. 교육학 분야에서는 학교로부터의 학생소외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소외감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으로 실시되었으며(Kim, 1989; Kim, 1990; Jong, 1987; Jong, 1997; Ok, 1991), 특히 간호학 분야의 국내 소외에 관한 연구는 주로 노인의 소외를 다루는 연구(Kim, 1974; Kim, 1987)와 고등학생의 소외와 건강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Kim, 1994) 등으로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등학생의 소외정도와 이와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소외와 위험행동의 잠재적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고등학생의 건강위험행위 감소를 위한 전략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심리사회적 문제인 소외와 우울과 자살사고 및 비행과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소외의 정도와 고등학생의 소외, 우울, 자살사고 및 비행과의 관계를 탐구하여 청소년 문제의 이해와 해결의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 우울, 자

살사고, 비행 정도를 검증한다.

- 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소외와 우울의 관계를 검증 한다.
- 3)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소외와 자살사고의 관계를 검증한다.
- 4)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소외와 비행과의 관계를 검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소외, 우울, 자살사고, 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군 지역에 소재한 1개 남녀공학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학년은 인문계 3학급과 실업계 2학급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남학생과 여학생, 인문계와 실업계 학생을 포함한 1학년 100명, 2학년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거한 234부중 응답문항이 누락된 8부를 제외한 22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소외척도, 자살생각척도, 우울척도, 청소년 비행척도로 구성된 것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학년, 계열, 성, 종교 유무, 부모 형태, 형제수, 가정경제상태, 학교성적, 성적변화추세, 친구유무를 포함시켰다.

1) 소외척도

소외를 특정한 사회의 구조적 조건하에서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경험으로 규정한 Seeman(1959, 1972)의 5가지 소외유형을 근거로 Mau(1992)의

SAS(Student Alienation Scale)와 Ok(1991)의 도구를 참고로 고등학생의 소외에 초점을 맞추어 수 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무력감, 무의미감, 무규범, 사회적 고립, 자기소원의 5개 하위척도에 각 6문항 씩 총 30문항을 5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를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 = .779$ 이었다.

2) 자살생각척도

Reynolds(1987)의 자살생각척도(SIQ)를 Shin(199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SIQ는 많은 청소년들이 우울하지 않지만 자살생각을 보인다는 관찰로부터 제작된 척도이다. 30문항의 자기보고형 척도로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0)”부터 “거의 매일 생각한다(6)”까지의 7점 척도로 되어있으므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180점이다. Shin(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6이었다.

3) 우울척도

Beck(1978)의 우울척도(BDI)로 Shin(1992)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21문항으로 구성된 BDI는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0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므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3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이다. Shin(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 = .90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0이었다.

4) 청소년 비행척도

다양한 청소년 비행척도를 참고로 Choi(1997)가 개발한 20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전혀없다(1점)”에서 “많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정도가 심한 것이다. 최태산(1997)연구에서의 신뢰도는 $\alpha = .89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0이었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00년 6월 20일에서 7월 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집단 면접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여 기관장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가 직접 학급에 들어가 연구 목적과 설문지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작성하게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5. 자료분석 및 처리

수집된 자료는 SA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확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의 차이 검증은 t-검증과 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test를 실시하였다. 각 변수들간의 관계는 Pearson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적 특성

226명의 대상자중 1학년은 100명(44.2%), 2학년은 126명(55.8%)으로 인문계 120명(53.1%)과 실업계 106명(46.9%)이었다. 성별로는 남학생 121명(53.5%), 여학생 105명(46.5%)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군은 57.8%이고 없는 군은 42.2%이었다.

84.9%의 학생이 친부모와 생활하며, 15.1%의 학생은 편부모나 계부모상태로 답하였다. 형제수에서는 형제가 없는 집단은 3.6%였고 나머지는 2명 이상으로 그중 2명인 집단이 43.8%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경제수입은 월100만원 미만 집단이 37.7%였고 100~300만원 미만 집단이 56.0%이었으며 300만원이상인 집단은 6.3%였다. 지난 1학기 동안 성적변화에 대해서는 43.0%의 학생은 변화가 없었고, 26%의 학생은 상승하였으며 31%의 학생이 저하되었다. 친구관계에서는 86.1%의 학생이 친구가 있으며, 13.9%의 학생은 친구가 없다고 하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소외, 우울, 자살사고, 비행의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 -itics	Division	Number	Frequency (%)	Character -itics	Division	Number	Frequency (%)
Grade	1	100	44.2	Economic Status(₩)	under a million	84	37.7
	2	126	55.8		1 to 2 million	96	43.0
Field	general	120	53.1		2 to 3 million	29	13.0
	vocational	106	46.9		over 3 million	14	6.3
Gender	male	121	53.5	School Ranks	1~10	62	27.8
	female	105	46.5		11~20	69	30.9
Religion	yes	130	57.8		21~30	44	19.7
	no	95	42.2		under 31	48	21.5
Parents Status	both-parents	191	84.9	Achieve -ment	increased a lot	22	9.9
	one-parent	28	12.4		increased a little	36	16.1
	step-parents	6	2.7		unchangeable	96	43.0
Number of Siblings	1	8	3.6		decreased a little	26	11.7
	2	98	43.8		decreased a lot	43	19.3
	3	58	25.9	Friends	yes	192	86.1
	4	34	15.2		no	31	13.9
	over 5	26	11.7				

missing cases are excluded

<Table 2> The degree of Alienation, Depression, Suicide idea and Delinquency on General Characteristics (N=226)

Characteristics	Alienation			Depression			Suicidal idea			Delinquenc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grade												
1	67.34(9.11)	0.32	.572	12.86(6.38)	0.76	.386	45.68(37.25)	0.94	.347	34.56(12.53)	1.47	.226
2	66.66(8.89)			13.54(5.36)			41.13(35.08)			35.57(12.00)		
Field												
General	66.39(9.59)	1.01	.312	13.22(6.32)	0.06	.950	42.67(35.58)	0.20	.834	33.44(13.81)	0.01	.990
Vocational	67.60(8.23)			13.26(5.25)			43.68(36.73)			33.46(10.27)		
Gender												
Male	67.31(9.28)	0.62	.533	11.74(5.64)	4.32	.000***	37.87(31.80)	2.38	.017*	49.22(8.85)	5.07	.000***
Female	66.56(8.64)			14.97(5.58)			29.24(39.68)			37.11(13.58)		
Religion												
Yes	66.86(9.32)	0.23	.812	13.42(5.23)	0.34	.728	43.03(35.33)	0.12	.904	33.14(14.10)	0.36	.717
No	67.15(8.56)			13.15(6.24)			43.63(37.21)			33.74(9.20)		
Parents Status												
Both-parents	66.97(9.14)	0.06	.937	13.23(6.04)	0.21	.814	43.34(36.30)	0.87	.419	33.57(12.83)	0.18	.836
One-parent	67.28(8.07)			13.75(4.25)			39.25(32.88)			32.82(9.10)		
Step-parents	65.83(9.76)			12.17(6.08)			60.67(43.34)			30.83(3.18)		
Number of Siblings												
1	69.25(7.36)	1.12	.348	14.50(7.46)	1.54	.190	36.25(35.59)	0.53	.716	35.50(11.79)	2.69	.032*
2	68.24(9.31)			14.01(6.07)			46.51(37.71)			36.03(14.00)		
3	65.95(8.44)			11.72(5.22)			38.81(31.20)			30.72(9.96)		
4	65.68(8.29)			13.06(5.96)			47.59(38.71)			33.26(12.32)		
Over 5	65.65(10.24)			13.57(5.19)			41.80(38.14)			29.26(2.28)		
Economic States(₩)												
under a million	67.03(9.19)	0.06	.979	13.83(5.55)	0.76	.516	46.41(38.74)	2.60	.053	32.21(9.98)C	8.34	.000***+
1 to 2 million	66.77(9.04)			13.17(6.27)			38.34(31.95)			31.12(9.56)C		
2 to 3 million	67.51(8.08)			11.96(4.92)			41.55(29.80)			38.48(15.96)B		
over 3 million	67.42(10.65)			12.92(6.03)			45.57(21.47)			45.57(21.47)A		

〈Table 2〉 The degree of Alienation, Depression, Suicide idea and Delinquency on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226)

Characteristics	Alienation			Depression			Suicidal idea			Delinquency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mean(SD)	t(F)	p
School Ranks												
1~10	65.43(7.98)	2.43	.066	13.90(4.98)	1.66	.176	38.12(32.48)	2.64	.051	30.16(9.75)C	5.77	.000***+
11~20	65.86(10.69)			12.14(5.16)			37.59(30.92)			31.26(10.21)CB		
21~30	68.77(7.43)			14.36(7.44)			51.56(41.61)			35.75(15.54)AB		
under 31	69.06(8.60)			12.97(6.01)			51.47(40.29)			38.50(12.86)A		
Achievement												
increased a lot	65.77(9.62)	0.70	.595	11.68(4.97)B	2.69	.032*+	27.27(20.64)	1.85	.119	31.09(9.95)	0.72	.582
increased little	68.05(10.63)			13.75(6.86)BA			45.16(35.93)			32.61(14.53)		
unchangeable	67.73(8.98)			12.28(5.24)B			41.69(35.34)			33.18(10.54)		
decreased a little	65.34(9.29)			14.00(5.73)BA			48.23(32.29)			32.96(13.52)		
decreased a lot	66.13(7.16)			15.34(6.20)A			51.51(39.17)			35.97(14.21)		
friends												
Yes	66.82(8.86)	0.69	.490	12.84(5.83)	2.79	.007**	43.03(36.08)	0.46	.644	33.57(12.63)	.62	.530
No	68.16(10.08)			15.77(5.33)			46.35(37.08)			32.32(9.98)		
total	66.96(8.98)			13.24(5.83)			43.14(36.05)			33.45(12.25)		

* p< .05 **p< .01 ***p< .001

+ p< .05 by Duncan test

대상자의 전체소외의 점수는 66.96이었고, 남학생 집단, 편부모 집단과 형제가 없는 외아들(딸) 집단의 소외점수가 높았고,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과 친구가 없는 집단이 소외점수가 높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제변수를 비교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우울점수가 높았으나($t=4.32$, $p=.000$), 자살사고 점수는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고($t=2.38$, $p=.017$), 비행점수도 남학생이 유의하게 높았다($t=5.07$, $p=.000$). 경제상태는 비행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상류층(300만원 이상), 중류층(200-300만원), 하류층(200만원이하) 간에 차이가 있었고, 상류층 집단이 하류층 집단보다 비행점수가 높았다($\chi^2 = 8.34$, $p=.000$). 또한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 집단과 상위권 학생 집단간의 비행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성적 하위권 집단의 비행점수가 높았다($\chi^2 = 5.77$, $p=.000$). 성적추세의 경우 성적이 많이 상승한 집단과 비슷한 학생집단에 비해 성적이 많이 저하된 학생집단이 우울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hi^2 = 2.69$, $p=.032$). 또한 우울은 친구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t=2.79$, $p=.007$) 친구가 없는 학생이 친구가 있는 학생에 비해 우울

점수가 높았다(Tab 2).

3.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비행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소외와 우울, 소외와 자살사고, 소외와 비행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소외와 우울($r=.432$, $p=.000$), 소외와 자살($r=.266$, $p=.000$), 그리고 소외와 비행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50$, $p=.023$)〈Tab 3〉.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226)

Variables	Depression	Suicidal idea	Delinquency
Alienation	.431 .000**	.266 .000**	.150 .023*

* p< .05 ** p< .001

IV.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생 청소년이 경험하는 소외, 우울, 자살사고와 비행의 정도를 확인하고, 이들 변수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일반적 특성 중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외를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Kim, 1990; Kim, 1994)와 성별에 따라 소외정도에 차

이가 없다는 결과(Choi, 1987; Jun, 1986)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소외와의 관계에서는 생활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Maeng, 1991; Jun, 1986)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거나 낮을수록 더 많은 소외를 경험한다는 연구결과(Kim, 1990)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소외지각정도와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Jeong(1983)의 연구와 일치한다. 성적과 소외와의 관계에서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들이 상 중위권 학생들보다 소외를 더욱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Lee, 1985; Jeong, 1997; Kang, 2000)과 결과가 일치하였다. 성적이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한국의 사회분위기에서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현재의 학업적 성취와 미래 직업활동간의 단절을 인식하게 되어 좌절감을 느끼며 무력감이나 무의미와 같은 소외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학업실패로 인하여 가족이나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질책과 비판을 받게되면 사회적 고립감이 더욱 가중되고, 수업이나 교실활동 및 학교규범에 반항하고 이탈하는 규범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Mau, 1992). 한편 친구와 소외의 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가 없는 학생이 친구가 있는 학생보다 전체적인 소외수준이 더 높았다. 청소년기는 가족외적인 관계를 많이 맺기 시작하고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시기인데, 이러한 가족외적인 관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친구관계이다. 그러므로, 친한 친구가 없는 학생은 친구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지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의 소원감인 사회적 고립과 같은 소외를 더욱 많이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우울점수는 평균 13.24으로, 이것은 Shin 등(1991)의 연구에서 서울 강남 지역 남·여 고등학생의 우울점수인 14.61, 16.32 보다 낮은 결과이다. 자살사고의 평균점수는 210점 만점에 43.14로 이는 조사대상자들이 최근에는 아닐지라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을 조사한 Hong(1998)의 연구에서는 평균

29.40으로 본 연구대상자들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우울과 자살사고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우울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았으나, 자살사고 점수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행위에 성별의 차이가 있고, 대체로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이 한다는 여러 연구들과 다른 결과이다. Rich 등(1992)의 연구결과에서는 여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자살생각과 우울이, 남자 청소년들에게서는 외로움과 약물사용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더욱 자세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비행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높았으며, 성적이 하위권인 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Kim, 2001; Griffin et al., 2000). 또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류층수록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위와 비행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가정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문제소년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가족의 외적인 경제적 지위보다는 가족구성원간의 애정과 사랑, 훈육방식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한편 학업성적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왔다. Kim(1991)의 연구에서는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이 비행에 대한 동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학업자아개념이 낮을수록 비행에 대한 동조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학업성이 부진할수록 비행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비행의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에 학습능력 향상과 수업 참여를 증진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생이 경험한 소외와 우울, 자살사고 및 비행과 유의한 관계가 있고, 소외를 많이 지각한 학생은 더욱 우울해하고, 자살생각과 비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의 소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은 우울($r=.432$, $p=.000$)이었다. Kim(1994)의 연구에서도 신체·정신건강의 하위유형중 소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변인이 우

울증이라고 제시되었다. 또한 Maeng(1991)의 소외와 성격과의 관계연구에서도 우울경향 수준에 따른 소외정도는 모든 소외의 하위유형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 자살행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심리적 증후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Hong, 1998; Shin 등, 1991). 결국 청소년들은 소외정도가 높을수록 우울을 심하게 경험하고, 이러한 우울이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소외와 비행이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는데 이는 소외의 하위유형 모두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Kim(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소외의 하위유형중 무규범은 비행의 강력한 예측인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소외가 청소년의 비행, 부적응, 자살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위험행동인 자살과 비행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소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들의 소외수준을 완화하고 소외를 극복하도록 돋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소외정도를 알아보고, 이 소외가 고등학생의 우울, 자살사고,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탐구하여 청소년 문제의 이해와 해결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일개군 지역 1·2학년 고등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에 의해 시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A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 특성과 소외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 특성과 우울, 자살사고, 비행과의 관계에서 우울정도는 남학생 집단보다 여학생 집단에서($t=4.32, p=.000$), 성적이 많이 상승된 학생보다 많이 저하된 학생에서($\chi^2 = 2.69, p=.032$), 친구가 있는 학생보다 없는 학생에서

($t=2.79, p=.007$) 점수가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살사고는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살사고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38, p=.017$). 비행정도는 여학생 집단보다 남학생 집단에서($t=5.07, p=.000$), 가정의 월 수입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chi^2 = 8.34, p=.000$), 학교성적이 하위권인 집단($\chi^2 = 5.77, p=.000$)에서 점수가 높아 유의하게 심하였다.

소외와 우울($r=.431, p=.000$), 소외와 자살사고($r=.266, p=.000$), 소외와 비행($r=.150, p=.023$)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느끼는 소외의 정도와 관련변수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연구로서 학교 보건의 측면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소외의 원인과 극복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학교 환경의 개선과 함께 가정, 지역사회, 나아가 대중문화로부터의 청소년 소외 연구를 복합적으로 병행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ronfenbrenner, V. (1976). *Who cares for America's Children?* In V. Vaughan & T. Brazelton (Eds.) *The Family - Can it be saved?* N.Y. : Year Book Medical Publishers
- Calabrese, R. L., Adams, J. (1990). Alienation : A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Adolescence*, 25(8), 435-440
- Cambor, C. G. (1973). *Adolescent alienation syndrome*. In J. C. Schoolar (Ed.), *Current issues in adolescent psychiatry*. New York : Brunner / Mazel.
- Choi, S. Y. (1987). *Th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Choi, T. S. (1997). *A casual analysis among psychology variables of family dynamics affecting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deviant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honnam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Chung, S. E. (1983). *A study on the factors forming the alienated 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Griffin, K. W., Botvin, G. I., Schier, L. M., Diaz, T., & Miller, N. L. (2000). Parenting practices as predeictors of substance use, delinquency, and aggression among urban minority youth :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structure and gender, *Psychol Behav*, 14(2), 174-184.
- Hong, N. M. (1998). *A study on the psychosocial factor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among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Ewha Woman University of Korea, Seoul.
- Ju, J. M. (1983). *Student perception of teacher's pupil control orientation and student Alienation in junior high school of Taipei.* The Republic of Chin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2309-A.
- Jun, Y. O. (1986) *Some Relationships between Alienation and Personality Trait on the MMPI.*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Jung, Y. S. (1997). *A study of aliena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Chungju.
- Kandel, D., Raveis, V., Davies, M. (1991).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ce : Depression, Substance Use, and other Risk Factors, *J Youth and Adolescence*, 20 (2).
- Kang, W. S. (1991). *The effect that learning accomplishment and affection shape influence on iso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Kang, W. S.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ived father's/mother's values, Father/Mother-student emotional intimacy & father's/mother's over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Alie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J. (1974). A study on the extent of alienation reavealed among a group of aged people on Seoul city. *J Korean Acad Nurs*, 4(2), 32-41.
- Kim, H. S. (2001). The influence of family dynamic environment, personality, and smoking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 Korean Acad Nurs*, 31(4), 641-655.
- Kim, K. S. (1990).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M. O. (1987). The study of alienation and physical aging in the old people. *J Korean Acad Nurs*, 17(1), 64-79.
- Kim, S. H. (1989). *A study of Alienation in School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S. M. (1994). *The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 physical,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Mater thesis, The Chosun University of Korea, Kwangju.
- Maeng, Y. I. (1991). *Relationship between alienation and personality of the secondary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Hong-Ik University of Korea, Seoul.
- Mau, R. Y. (1992). The validity and Devolution a concept : student alienation. *Adolescence*, 27(107), 731-.
- Ok, I. N. (1991). *Student's alienation in the classroom environments.* Master thesis.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Seoul.
-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 783-791
- Seeman, M. (1972). *Alienation and Engagement, in the Human Meaning of Social Change.* eds by Campbell and P. Converse, N.Y. : Russel Sage Basic Book, ch.12, 468-471.
- Shin, M. S. (1992). *An empirical study of the mechanism of suicide : validation of the scale for escape from the self.*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Yonsei University of Korea, Seoul.
- Shin, M. S., Park, K. B., Oh, K. J. (1991). The effect of Depression and Impulsivity on Adolescent Suicide Behavior. *Korean J Clinical Psychology*, 10(1), 286-297.
- Unwin, J. R. (1970). Depression in alienated youth.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 15, 83-86.
- Young, T. J. (1989). Alienation and Self-reported Deviance, *Psychological Reports*, 65, 727-730.

Abstract

Correlation Between Alienation and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Lee, Eun-Ju* · Lee, Eun-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level of alienat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delinquency in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variables.

The respondents, 226 students attending a high school located in Chonnam province made up the convenience sampl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which included the alienation scale, suicidal ideation scale, BDI, and delinquency scale. Data collection was done between June 20 and July 6, 2001.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AS program and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alien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The scores for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female students, in students who had recently dropped in their school ranking compared to students who had improved. The scores of suicidal ideati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tudents. Also, the scores of delinquenc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ale students, and students in

* Department of Medical technology, Seokang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nam Techno College

the high economic class and those with low school rankings.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lienation and other; alienation and depression ($r = .432$, $p = .000$), alienation and suicidal ideation ($r = .267$, $p = .000$), and alienation and delinquency ($r = .150$, $p = .024$).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ubsequent practical study in consideration of Korean sociocultural background is needed

to identify the cause of alienation and develop supportive strategies to maintain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students. Also, study on alienation of students should be based on family, community and popular culture in combination with improvements in school environment.

Key words : Student Alienation,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Delinquency